

## ‘도동나래’에 모여 함께 책을 읽자!

테크노초,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서비스 개시 기념 독서문화 행사

대구테크노초등학교(교장 박호길)는 학교도서관 ‘도동 나래’가 7월부터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를 개시한 기념으로 지난 6일(토)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했다.

‘도동나래’는 대구지역 최초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의 ‘도동’과 날개를 뜻하는 순우리 말인 ‘나래’를 합성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책을 통해 생각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공간을 뜻한다.

이날 테크노초는 대구달성도서관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그림책 독서지도 강의, ▲학생들을 위한 책 놀이 활동, ▲책 읽는 가족 폴라로이드 사진 행사, ▲대구테크노초등학교 굿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독서문화 행사에 참석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와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동나래는 대구달성도서관, 대구북부도서관, 2·28기념학생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립도서관에서 기증받은 도서 6,000여 권을 포함해, 아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 총 1

만 3,000여 권으로 구성된 다양한 독서공간을 조성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자료제공:대구테크노초등학교〉



### 쁘띠자르당 까까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1  
문의 ☎ 053-615-6618

## ‘풍부한 경험과 실력있는’ 열펌 전문 미용실

논공 평광4자APT 입구에 있는 미용실 ‘쁘띠자르당 까까’를 소개한다.

사장님의 미용실을 시작한 지는 35년 정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만 도 벌써 21년째이다. 그러기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도맡아 왔다. 활기찬 동네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방을 방문해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입구에 들어서니 활짝 웃으면서 반겨 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하루가 즐겁다. 꼼꼼한 성격과 남다른 손재주를 가진 사장님의 원래 미용 쪽에 관심이 있어서 미용실을 시작하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적성에도 맞아서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한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자랑하신다. 이곳 사장님의 주특기는 열펌이라고 한다.



물론 미용실 원장님이라면 다들 커트 실력은 기본이겠지만 이곳 사장님은 풍부한 경험으로 특히 커트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다. 최신시설의 장비와 사장님의 모발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풍부한 듯하다.

방문하시기 전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많이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손님 중에는 외국인 특히 베트남 분들이 많다고 한다.

항상 손님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전에 한 번이라도 오신 손님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단골 확보에 노력한 결과 대부분 단골손님 덕분에 운영상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한다.

향후 바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미용기능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장님은 주 2회 정도 장애인센터 ‘헤어사랑’이라는 곳에 커트 봉사를 나가고 있

는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셨다. 그리고 논공읍 ‘다동이 행복가게’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미용 요금을 할인도 해주신다고 한다.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가까운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신재진 객원기자

우리 동네 헛풀  
이 가게 어때?